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 '부적격' 판정

도의회 인사특위 "1차산업 대응 책임자로 판단 어려워" 행정경험 전문 등 자질론 도마... 원지사 임명여부 촉각

김성언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예정자가 행정경험 및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인사특위가 김 예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김 예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위원장 강철남)는 인사청문 질의답변 과정에서 김 예정자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1차산업 중 감귤산업을 제외한 축산, 해양수산 등의 분야에서는 실질적

로 정책을 주도하고 수립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과 관련 이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인사특위는 "여러가지 현안을 해결해나가야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과 언론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 및 국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풀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급변하는 1차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제주도와 직접적인 관련 사항 등을 통해 확인했



3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을 때 1차산업 대응을 위한 책임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특위는 김 예정자가 행정경험이 전문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자질론'을 도마위에 올렸다. 또 제주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 예정자는 "모르는 것은 배우면서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겠다"면서 "저의 주관을 지사에게 얘기할 자신이 있다"며 경정하고 소통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문 대통령 "슬픔 나눠준 국민께 감사"

모친 별세 관련 글 남겨 여야 모두 애도 뜻 전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 별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애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나눠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을 저와 가족들이 지킬 수 있었다"며 "평생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고생도 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고 전했다.

이어 "41년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 오랜 세월 신앙 속에서 자식들만 바라보면 사셨는데, 제가 때때로 기쁨과 영광을 드렸을 진 몰라도 불효가 훨씬 많았다"며 "특히 제가 정치의 길로 들어선 후로 평은 하지 않은 정치의 한복판에 제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가슴

을 졸이셨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많은 분들의 조의를 마음으로도 받는 것을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서도 조문을 오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살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슬픔을 나눠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는 지난 29일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통해 일체의 조문을 받지 않을 것이며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여야 모두 문 대통령 모친 별세 소식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애도의 뜻으로 예정되었던 의원총회를 연기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문 대통령과 김경숙 여사를 위로했다.

청와대·부미천기자

빗물 이용 의무시설 실태조사 지하수 사용 절감 효과 분석

빗물이용시설이 실제 '지하수 사용 절감'에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8일까지 도내 골프장과 체육시설, 호텔, 업무시설, 공공주택 등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 54개 시설에 대한 '사용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54개소 가운데 골프장은 30개, 업무시설 10개, 공공주택 7개, 호텔 4개, 체육시설 2개, 의료시설 1개로 이뤄졌다.

빗물이용시설은 농업에 이용되는 지하수 사용 절감과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우수를 저류시켜 도로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이러한 빗물이용시설이 실제 지하수 사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지 살펴보고, 사용실태를 확인해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5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198억원을 투입, 비닐하우스 등 1322개소에 설치를 실시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관광 침체·태풍 피해... 예산 조기집행 최선"

민주당, 예산정책간담회 4·3특별법 처리도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경제갈등 여파로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잦은 가을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은 제주도의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분청 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제주도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의 통해 민주당과 제주도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일 경제전쟁 여파로 관광산업 침체되고, 잦은 가을 태풍으로 농작물과 시설 피해 발생 농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제주도의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제주도의회는 제주농산물해상운송비 국비 지원(49억원),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설사업(40억원), 제주도 노후 하수관로 및 하수도시설 정비사업(25억원), 4·3복합센터 건립사업(15억원) 등 내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과 서귀포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R 재활용센터 신축사업,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설명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 국비 추가 확보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제주4·3이 올해로 71주년을 맞았다.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등 완전한 해결을 통해 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사장 선거사범 선출 논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한광문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대변인이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선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교통약자지원센터는 30일 이사회에 이어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 전 대변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한 전 대변인은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2일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이 확정된 인물이다.

이후 한 전 대변인이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사장에 단독 후보로 추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당·노동·시

민사회단체의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선거법 위반 범죄자를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제주도가 교통약자지원센터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다. 이에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지난 2일 단독 후보가 아닌 복수추천으로 이사장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사회에서는 한 전 대변인과 복수추천자 A씨에 대한 표결이 동률을 이루면서 대의원 총회가 열렸고, 한 전 대변인이 A씨보다 많은 표를 획득해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고위간부 2명이 참석해 한 전 대변인에게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범기자

도심속 잘 가꾼 집 10곳 선정

제주시는 주택의 작은 공간에 자연친화적인 도심 속 녹색 공간 확산을 위한 꽃과 나무 등으로 정성스럽고 곱들락 하게 잘 가꾼 집 10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와 제주도 주택과에 방문, 읍면동장 또는 마을 리장

(통장) 등의 추천으로 18곳을 접수 받았다.

이 중 창고시설과 일반음식점 용도 2곳을 제외한 16곳에 대해 이달 28일 선정위원회 심사를 완료했다.

선정위원회는 도시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 10명으로 구성했고 평가표에 따라 최고 점수 순으로 10곳을 선정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11회 환경면민체육대회

결실의 계절을 맞아 "문밖 모다들영, 한마음 체육대회!"의 기치아래 환경면민이 하나되는 한마당 축제인 『제11회 환경면민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대회일자 : 2019. 11. 3.(일) 09:00 ※ 개회식 : 10시
- ◆ 대회장소 : 한경체육관 운동장

- ◇ 주 최 : 한경면체육회
- ◇ 주 관 : 한경면연합청년회
- ◇ 경기종목 : 배구, 줄넘기, 2인3각, 윷놀이, 족구, 한궁, 고리널기, 투호
- ◇ 연 락 처 : 한경면체육회 728-7911

상임부회장 김 상 문
부 회 장 조은호, 고경화, 강남협, 변재성, 문화자, 김봉찬
감 사 변한봉, 송승보
사무국장 강 형 권

한경면체육회장 고 영 철

제27회 울산대학교제주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

제주 들녘에 감글색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동문들의 만남으로 서로 우의를 도모하고자 제27회 한마음축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2019년 11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신광초등학교 운동장
- 주 최** 울산대학교제주동문회

연 회 장 : 김용현 ☎ 010-9839-6533
부회장 : 하영택 ☎ 010-3691-0353
총 부 : 권 규 ☎ 010-9305-0268

울산대학교제주동문회
회장 김 용 현

金海金氏三賢福模派 時 祭 案 內

豐饒로운 結實의 季節을 맞이하여 宗親諸位의 健康과 家內에 萬福이 깃들시기를 祈願합니다.
入道先祖時祭를 다음과 같이 奉行하오니 宗親 여러분들의 많은 參席바랍니다.

- 다 음 -

日 時
2019年 11月 3日 (日曜日)
午前 11時 (陰 10월 7일)

場 所
濟州市 海安洞 許門道 先塋下

※ 連絡處 : 總務 曺명 010-2632-6644

金海金氏 三賢福模派宗親會
會 長 泰 煥
靑年會長 世 晏